

法觀(戒律)을 現實에 빛추어 改正하자。 우리가 일즉이 光統과 慈藏의 未된진면어름(한人間假而의比丘가 될여고말고 차라리 불기참人間의々한 現代人이되기爲하야 우리의信仰內容을 究치자。 우리는 이즉 貞은니 帶妻도하며 肉食도하자。 하나 우리는 다맛 性的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結婚하지말고 부더년의 聖的의능리를잇기爲하야 남다른配偶를 고르자。 그다음에 우리 貞은품을 健全하기爲하야 肉食을하자。 하나 肉의 肉의生命을 屠殺하지는말자。 이는 慈悲의種子를 究단것이니 慈悲種子는 佛種子이다。 그리하나 우리는 꼭 戒키지아니하면 안될個條가잇스니 이는 妄語와 綺語이다。 이는 우리佛敎倫理뿐만아니라 社會道德에잇서서도 戒키지안하면 안될條目이다。 殺 盜 淫 酒를 現成이라하면 妄語綺語는 隱成이다。 그리하야 妄語綺語로는 自己의 가정親密한 父母兄弟까지도 속일수가잇스며 또는 自己가 속히질수도잇다。 이리하여 妄語와 綺語의 非笑이 잇는사람은 普通世俗人。로서도 無信用, 不正直으로 奸嫉하기의잇다。 流言蜚語로서 無端한사람 無端한社會를 中

朝鮮佛敎中等教育問題

姜 裕 文

現下朝鮮佛敎에잇어 緊急한問題를나면 實도 한두가지가안이겠스나 教育問題 特히 中等教育問題에對하야는 우리가 慎重도熱心히 檢討하지안으면 안될것이라한다。

元來도 中等教育이라하는것은 教育的意味로보아 中心點이되갓는 同時에 가장 重要視하여야될것이다。 初等教育이 教育的效果의基礎라면 中等教育은 그의結實이라고볼것이다。 그리고 저一專門大學에 이르러서는 일은바 教育的이라기보다 知識的 學問的으로만 意味를가진것이라고 보고싶은것이내 나의말하고저하는바 教育的으로본다면 오히려 未어은意義를가지지 안엇다고할것이다。 한거름나아가서 나는 今日教育施設은 모름이中

傷하고 離間하는것은 君子紳士의 할것이아니며 甘言利說로써 個人과 或은 大衆을弄絡하는것은 朝聚暮散 背義悖法の 무리가아니고는그런수업다 薔薇花와 海棠花가 같지아니함은 아니나 가시돋친것이 그病이라내가실히하며 대와술이 質朴하지안음은 아니나 雪寒風에도 凜々然하게高節을 자랑함으로써 내사랑하는까닭이다。 貞은同伴여!! 우리는戒律을적키는것보다 佛恩을가기爲하야 寺恩을가기爲하야 넘어가는法城을 밟고참기爲하야 以上에말한이것만은 實行합시다。

(七四頁로부터續)

잇서서 健康狀態는아니라고 囑친 現今에 南湖가 「밥」을말하기前 奮然히 「自己를알어야한다」고 雄叫할것은 現代科學으로 敵機를 擊成하는 探照燈은 製作하고 人體에들어간 彈丸의所在을 알이내는 엑스光線은 이서도 마음의暗黒을 빛추는燈籠과 마음의煩悶을 撲치는藥이 업는것을 痛切히告진 所以이다。 幽明의別이 다름으로 지공 南湖의 色身을 볼수업스나 本來부터 名相을 실히하는 南湖에게 累를 戒키기 두리워하야 이꽃을 누는다。 戊寅十一月十日

等까지에미치고 專門以上으로는 特別한機關施設은 要치말고 옛년專門家를 師로삼아 各自의自由研究에 맡길것이란것을 이런機會에서 主張하고자하는바이다。 萬一 나의이런 主張으로보아오나면 中等教育의重要性이란 實도 想像以上으로큰것일것이다。 여기엇지 萬全의努力이업고될것이랴!

二

今日朝鮮佛敎는 教育機關으로 專門學校가 한아 저육이 面目을가추어잇을뿐이고 中等初等은 거의 볼만한것이업는우에 地方에 若干 施設이잇다 할지라도 初等中等의區劃이 分明치못한바있다。 生徒의 年齡差異가 너무懸隔하야 生理的成長에 適應한教育을 배풀지못하는것은 過度期에잇

어 被教育者整理上 不得已한것이라 할지라도 教育機關自體의 施設이非初非中 亦初亦中 或不及過 或過不及等 不備가있어 被教育者生徒로하여 該 官能을 適宜하게 發達시킬機會를 일케한 다는것은 局에當한者로서 再思三省할것이라한다.

모라 1 朝鮮各寺刹에 講院이라는 教育機關이 있는바안이나 그施設의疎略한것과 그內容의중잡 기어려운점은 뜻있는者 眞실노 生徒들의게對한 未安을늦기지안을주 應을것이다.

안인게안이라 佛典그것이 그內容에있어 初中程度로 난후기어려운바있고 寺刹財産그것이 分山된바있어 初中程度의施設을 整然하게치리기에 는 온갖 難色이潛在하였다하겠으나 이렇으로써 우리의 이에對한努力이 必要한것이고 이問題의 檢討가 매우 緊急하게된 所以라는것이다.

우리의게 經綸과 努力만이있다면 全朝鮮一千餘寺刹이 있던方法을講究하여 一 二 又是三三三個所의 初中程度學校를 經營못하랴 저 慶北五本寺가 聯合一團이되어 新春부터 當局의認可있는佛敎中等學校를 經營하게다하니 그成功與否는 우리의 豫斷을 許치안는바이겠스나 그企圖만은 確

固히야 歐米 그것에比하면 多大한犧牲이있게되거 든 하플며 佛敎中等學校라하야 거기에 또한負擔이있게되니 眞실노 生徒로써 消化難도잇스려 니와 經營者로서 施設難도큰것이다.

學年을延長식해서 生徒의過重한負擔을 時間的으로써 輕減시킬도한 方法이잇스나 그러하자면 經營者의 施設費過重도問題이고 生徒學年延長이 또한 一生에있어 容積한影響을 주게되는것이니 그도 考慮하지안을수업는것일것이다.

우리가 이에想到함에 佛敎中等學校란 眞실노 만들기어려운것임을 늦기지안을수업는것이다. 그러하고 우리는 부즈럽시 自暴로마칠것이안이며 翻心一奮 스스로 그活路를찾지안을수업다. 우리는 萬難을排除하고라도 우리佛敎中等學校를 男女各別로 全朝鮮을通하야 저어도 몇개세우지안 을수업는 情勢에있다. 나는 그의實現後에 供키爲하야 다음과같은方針을 提出하는바이다.

- 一、行解雙全主義를確立할것
- 二、佛典은 極히 根本的인것을 初步的으로敎授할것
- 三、普通學科目은 此를概括할것

實히 朝鮮佛敎에있어 重大한示唆를주는것이라하 겠는同時에 그先鑑의明을 賞추기에 足하마한것 이다.

三

대체로 佛敎初等敎育이라는것은 今일에있어 未 取拔하기에 어려운바있다할것이다. 만일 昔日처럼 日常生活에對한 必須常識이 過要되지안 는다면 일은바 沙彌로써 單純한常識으로 生活을營爲할수잇겠나니 寺刹內에 簡易한機關을施設 하야 初等敎育에充할수잇스나 今처럼 生活上 常識이複雜한예에는 到底히 昔日그것으로써 能치못할것이 自明한일일것이다. 그럼으로써 初等敎育만은 普通小學敎育에 一任하지안을수잇을것 도 不得已한일이다.

그러면 우리가問題되는것은 中等敎育問題이다 저어도 佛敎中等敎育機關이라하면 佛敎의色彩가濃 厚하게아지안을수업는것인同時에 普通中等知識도 充實하도록 하지안을수업는것이니 여기서 우리 는 困難을늦기게되는것이다.

今日 普通中等學校로서도 語學等準備知識으로

첫째 行解를雙全하여야된다는것은 누구나다主 張하는바일것이다. 만일 知識이 生活에必要한그 것이 되지못하고 知識으로만의 知識이되고만다 면 그야말노 雲飛鶴鳴처럼 아무相關업는것이될 것이니 이것지 貴重한時間과 物資를消費하는報償이되랴 善自我自我는 古人の禁戒이지만은 今人으로서 더욱조심할일이다. 이리하야 우리는 그 實行의一端으로 學校內에다가 僧伽生活을 體驗할機關을만드려 嚴하規律노써 몸과마음의 統制 鍛鍊에힘쓸것이다. 一生의僧伽生活體驗을 이中等學校時代에 참으로 修得할機會를지을것이다.

둘째 中等學校에서가라칠 佛典은 極히 根本的인것을選擇하야 가장 初步的으로 平易하게敎授할것이니 例로말하자면 戒律노써 僧伽生活의真相을 體得하게할것이고 史傳노써 敎團의變遷을 알게할것이며 阿舍部經으로써 根本佛敎를 엿보게할것이지 부즈럽시 慣習에만연매이어 形式的으로 口頭禪을 弄치말것이다. 이리자면 우리앞에 먼저노히는問題는 敎科編纂일것이다. 안인게안이라 佛典에關한 中等敎科書는 하루밤비 단을必要가있다. 佛敎中等敎科書의 得不得은 實

노 朝鮮佛敎中等教育에 있어 重大問題인 동시에 朝鮮佛敎 그것의 基礎를 確立시키는 데 重大役割이 되 는 것이다. 이하야 佛敎專門學校의 機能도 生命 化시킬 수 있는 것이니 次一佛敎에 對한 아무 基礎知 識이 없는 普通中等學校出身生徒가 佛敎專門에 들 어가 佛敎時間에 아무 興味를 갖지 못하고 따라 서 効果를 내지 못하니 이 무삼 自他의 損失이리 라 모음이 佛敎의 基礎知識을 弄하여 佛敎中等 學校의 教科書를 編纂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普通學科는 그것이 보다 生活上 必須 知識이 될 것인 것만큼 概括的이라도 全部에 亘하여 教授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四

나는 以上에서 若干 所感을 말하여 왔거니와 이 問題가 적지 않은 것인 만큼 敎界有志는 이에 크 게 檢討할 것이라 하고 뜻을 뜻는다.

丁丑十二月十二日夜

—(京城明倫寓居에서)—

(五十二頁으로부터續)
우선 生活安定을 못하니 가요。 凡夫는 避치 못 할 일인지。 그러나 그는 佛敎를 아나 佛敎를 버리 지 않겠지요。

賈永眞 가 나 원질이요 좀 널리 생각하여야지요。 司會 何如間 于先宗務當局者들이 좀더 熱을 내어야겠습니다。 當局者로서는 評議員會에서 定 한學費만 보내었스면 그만이지 態度 即너 무 機械的으로 執行만 하지 말고서 學生의 動 向에 關心을 가지고 學父兄의 責을 다하도록 되 어야 하지요。 그리고 梁尼말삼가치 먼저 朝鮮 佛敎를 研究하여 朝鮮佛敎의 旨을 確立시킨 다음 이 信條下에 차라는 佛徒는 各其素質에 따라 留 學시키는 것이 조출뜻함니다。 그러나 當分間은 佛敎科를 專攻시키는 것이 조처안을 가요。 時間도 늦고 하니 이단으로 맞치겠습니다。 니 무 오랫동안 수고를 끼쳐 大端未安하게 되었습 니다。 (文責을 記者)

佛敎의 宗敎的 特異性

張 元 圭

宗敎는 人類의 歷史가 있음으로부터 人間이 생 存하는 곳마다 있었음은 歷史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宗敎에 對한 觀念은 原始人과 現代人과 相 異하며 같은 現代의 高等宗敎者라도 文化의 程度 에 따라 相異하다。 即 一般人文 現象의 發展과 같이 宗敎現象도 底級의 宗敎로 불어 高級의 宗敎로 進 化하는 것이다。

一、머리말

그러함으로 宗敎學이 創始하여 宗敎의 定義를 提唱한 者만호나 各其 다르다。 그러나 一世紀前까 지는 宗敎學者의 提唱한 定義는 大概 基督敎의 神의 觀念을 基礎로 하여 神과 人間과의 關係를 根 本條件으로 하여 定義를 提唱하였다。 根 本條件으로 하여 佛敎가 처음 西洋宗敎學者에게 알

여졌을 때에는 神을 條件으로 한 宗敎의 概念으로는 理解할 수 없습니다。 佛敎는 虛無論이요 人生哲學 이라고 하며 宗敎性을 否認하였다。 近聞英國이 印 度를 植民地로 한 後에 印度의 思想研究에 研究結 果 宗敎의 概念을 神과 人間과의 關係에 두지 않고 聖과 俗이라는 데에 두게 되었다。 따라서 佛敎의 禪 定을 研究하여 禪定이 宗敎의 必然의 標準임을 認識 하고 基督敎는 祈禱의 宗敎요 佛敎는 禪定의 宗 敎라고 公認하게 되었다。

그러나 現今佛弟子로서도 宗敎의 意義를 認識 하지 못하고 佛敎를 哲學으로만 解釋하고 實踐躬 行의 宗敎性을 放視하는 者 許多하다。 또한 佛敎 에 造詣가 깊지 못한 一般社會人은 宗敎는 非科 學이라고 하며 佛敎를 度外視하는 傾向이 적지 않다。 根 本條件으로 하여 佛敎의 宗敎性과 科學性을 再吟味